

현장을 찾아서 · 천안 남남나이론(株)

기업의 환경관리는 생산성향상의 지름길

■ 편집부

아름 다음은 영원한 에로스.....

차창너머 저편은 이미 '추억'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다. 서울에서 한 시간 남짓한 거리인 천안은 아담한 도시. 역 광장엔 제법스산한 바람마저 불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물결을 당해낼 재간은 없는것 같았다.

'비비안'이라면 여성들에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브랜드. 11월의 현장은 천안역에서 그리 멀지않은 곳에 위치한 '비비안'의 산실, 남남나이론 주식회사(대표이사·김이현)의 문을 두드렸다.

지난 '70년 이곳 신부동 8천여평의 대지 위에 설립된 남남나이론은 국내 굴지의 스타킹 제조회사다.

회의실안에 진열된 다양한 종류의 스타킹들이 남남나이론의 어제와 오늘을 대변해 준다. 스타킹은 제품자체가 섬세한 탓

(표). 처리전후의 수질상태

(단위 : ppm)

항목	구분	1차처리		2차처리(예상)		법정기준치 (나지역)
		원수	처리수	원수	처리수	
PH		7.5±0.5	7.5±0.5	7.5±0.5	7.5±0.5	5.8-8.6
BOD		400-600	100-120	200-300	30-50	150
COD		300-500	90-110	100-150	20-30	150
SS		150-200	5-10	15-20	15-20	150
색도		1000-1500	150-250	200-300	100-150	400

인지 생산과정역시 편직에서부터 포장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손끝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업이었다.

부산한 작업현장을 뒤로하고 다음으론 본사의 환경관리상황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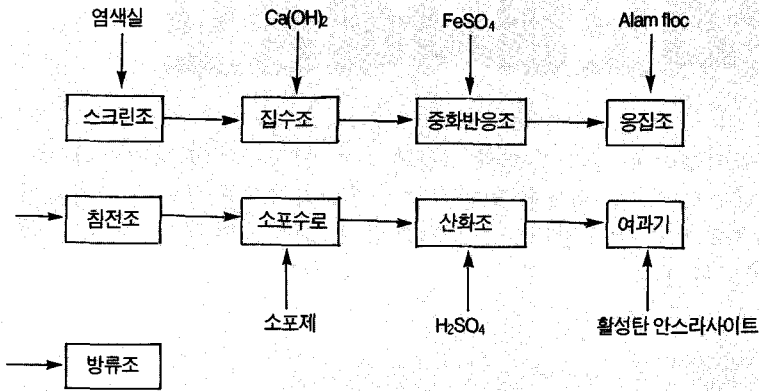
공장장 심인확상무이사는 과감한 시설투자와 전천후 환경관리를 본사의 환경방침으로 꼽았다.

심상무는 지도·감독만으론 환경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우리 주변의 환경오염문제부터 선결해야한다는 환경관을 제시하기도 했다.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지적이 아닐수 없다.

우선 폐수처리장은 '80년부터 가동되었는데, 이후 '86년 가 '88년 두 차례에 걸쳐 집수조와 중화반응조를 증설했다. 현재 폐수발생량은 일일 4백 50톤.

그동안은 화학적처리를 해왔으나, 지난 3월 대구 폐늘유출 사건과 비산 염색공단 폐수방류사건을 계기로 야기된 염색 폐수의 문제점을 고려해 본사도 기존의 시설을 보완, 생물학적 처리시설로 증설 중이다.

폐수처리공정도



조광현환경관리인을 따라 나선 현장은 그래서 발디딤기가 바빴다.

1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이 공사는 올년 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가 완료되면 보다 완벽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손광세과장의 설명이 이어졌다.

특히 본사는 염색폐수자체가 60°C정도의 고열을 갖고 있는 점에 착안, 이 열을 열교환기로 회수하여 냉수를 온수화, 이것을 염색수로 공급해 오고있다. 지난해 방지시설 운영비로는 수질의 경우 약 6천 5백 여만원 가량이 소요됐다.

대기쪽은 보일러 4,5톤으로 2종규모, 원심력식 집진시설(M/C)이 설치되어 있다.

사내 한구석 편에 적재해있는 폐기물더미가 어쩔수없이 현재 우리의 '폐기물처리현황'을 보여주기도 했다.

환경관리경력 7년째인 조관리인은 올해 환경관리장에서

환경관리인. 1991.11

'노력장'을 수장한 역량있는 젊은 환경인이다.

몇 모르고 뛰어든 길이었다는 표현이 오히려 인간적이었다. 그렇게 출발하고 나서 몇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야 비로서 뭇가(?)를 터득하기 시작했다는 조관리인의 말이다.

그는 대전·충남 협의회

부회장으로, 이곳 천안지역 환경관리인모임의 주체로서 의욕적인 활동을 펴고있다.

그러나 기술개발의 취약함으로 빛어지는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직장에서의 소외감을 호소하는 후배들의 푸념이 못내 안타깝다고 했다. 그역시 한때 주변의 왜곡된 시선으로 인하여 '외톨이'일 수 밖에 없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자신은 상사인 손과장이 대기 기사자격증을 가진 환경관리인이라 업무처리나 모든 면에서 든든하다며.....

지금까지 그랬던것처럼 이순간에도 조관리인은 그의 말대로 환경보전의 최일선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사명감과 환경관리업무가 기업의 경제적인 생산활동에 크나큰 보탬이 된다는 긍지로 현장을 지키고 가꾸고 있을 것이다. ◻



▲수처리장 증설공사로 방수한 현장. 서광현(왼쪽)과 손광세(오른쪽)의 조광현 환경관리인